

## 與 분당사태... 개헌 논란... 정국 격랑

# F1·서남권 특별법 등 '타격'

### 상반기 처리 안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

5일부터 30일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당의 분당과 정계개편, 개헌 논란 등 격랑이 일고 있는 정국상황과 맞물려 광주·전남 지역 주요 현안을 지원해 줄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전남지역 주요사업 관련 법안은 'F-1(포플러 원) 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 또 현재 정부가 법안을 마련 중인 '서남권발전특별법'은 최소한 올 상반기 중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우선 2010년 전남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경우 원만한 대회 추진을 위해 오는 7월에는 경주장 착공에 나서야 하나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근본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

F1 경기장은 올 7월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양생 기간 등 물리적 시한에 쫓겨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남도는 지난해 대회 주관 기관에 경주장 건설 지연 등으로 2010년에 첫 F1대회를 치르지 못하더라도 개최권료 360억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소를 원만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국회의원들은 정계개편의 흐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F1 특별법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F-1 특별법이 발의된 지난해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의 공조는 기대 이하였다. 여기에 여당이 갈라져 열린우리당, 여당 탈당 의원들의 교섭단체, 민주당 등 3개 정파로 분화되면 F-1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체제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설 연휴 직후 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게 되면 여야간 치열한 대치국면이 예상돼 F-1 특별법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다 농림부가 최근 F1경주장이 들어설 해남·영암의 간척지 양도양수에 대해 기업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착공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건설과 함께 전남 개발의 2대 축으로 평가받는 서남권 등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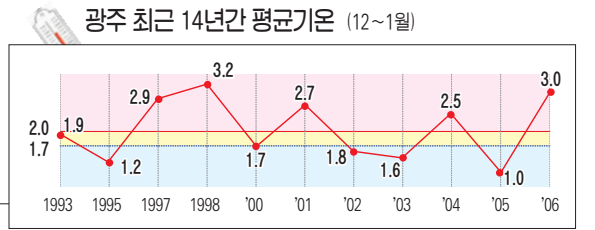
후지역개발특별법도 정치일정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올 상반기 중 통과되어야 하지만 현 정국 상황을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

한편 전남도와 경남도가 공동 추진 중인 '남해안발전특별법'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되지만 정국의 소용돌이가 커질 경우 부정적 영향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한 야당의원은 "F-1 특별법은 J-프로젝트의 연전에 해당 하는 법안이다. 또 서남권 개발 특별법도 전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정치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겨·울·실·증



# '이상난동' 농작물 '신음'

### 병해충 방제 비상...가뭄·산불 등 피해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올 겨울 기온이 지난 15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상난동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비롯된 봄같은 겨울 날씨 때문에 월동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겨울상품 매출이 급감하는 등 생태계 변화로 인한 파장이 크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까지 2개월간 광주지역 평균 기온은 영상 3.0도로 집

계됐다. 이는 지난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기온 1.7도보다 1.3도가 높은 것으로, 지난 1939년 광주 지방기상청이 창설된 이래 여섯 번째, 그리고 지난 1992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여수지역의 경우 올 겨울 평균기온은 영상 4.8도를 기록해 평균기온인 3.6도에 비해 1.2도가 높았으며, 목포 역시 올 겨울 평균 기온은 3.4도로 평년기온 3.1도보다 0.3도가 높은 것

로 나타났다.

이처럼 겨울기온이 크게 오르자 농민들은 하우스 재배 시설채소의 잦은 고품과, 환기부족, 균해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걱정하고 있다. 또 월동해충인 애벌레와 꽃등미충, 벼물바구미 등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과수 역시 월동 휴면기간이 짧아져 싹트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적절한 방제와 함께 꽃병 추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식수원인 주암댐(본댐)의 저수율이 예년의 48.3%에 비해 10.9%포인트 떨어진 37.4%를 기록하는 등 겨울가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신안과 완도,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건조한 날씨를 틈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남도는 예년보다 10여 일 앞당겨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 등 광주·전남지역 유통업체도 겨울매출이 많이 감소, 울상을 짓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광주지역 백화점업체는 최근 일제히 신년 바겐세일을 실시했지만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기후 온난화로 인해 의류부분의 매출감소가 가장 심했으며, 난방용품도 20%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겨울상품 판매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중 한 두 차례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온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마늘은 웃자라고...

올 겨울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마늘과 양파 등 각종 작물의 생육이 예년보다 10여일 가량 빨라졌다. 임춘은 4일 화순군 화순읍에서 한 농민이 예년에 비해 웃자란 마늘을 살펴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2010 F1 추진위'

### 오는 9일 출범

#### 위원장 김혁규씨



오는 2010년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2010 F1(포플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9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F1대회 개최 의미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참석 위원들은 운영 규약을 제정한다.

추진위 위원장은 김혁규(사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이 맡게되며 유선호·정병국·임태희·최인기·채일병 의원과 홍기화 KOTRA사장,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강주안 아시나항공 사장 등 3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농수산물 무역 적자 사상 최대

### 지난해 127억달러...전년보다 17% 급증

시장개방 가속화로 농수산물의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일 관세청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수산물 무역적자는 126억 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16.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농수산물 무역 적자규모는 1987년 4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1996년 85억 6천만달러까지 급증한 뒤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79억 3천만달러)부터 감소세로 전환, 1998년에는 39억 9천만달러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1999년 54억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늘기 시작해 2000년 68억 3천만달러, 2001년 72억 6천만달러, 2002년 86억 7천만달러, 2003년 91억

9천만달러, 2004년 101억 2천만달러를 거쳐 2005년에는 108억 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농수산물 수입액은 160억 9천만달러로 11.3% 증가한 반면, 수출은 34억달러로 수산물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지난해 농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중국 32억 3천만달러, 미국 29억 8천만달러, 호주 16억 6천만달러, 뉴질랜드 7억 2천만달러, 브라질 6억 1천만달러 등 순이다.

국산 농수산물의 수출은 일본이 13억 1천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대비는 9.7% 감소했다.

이는 방울토마토 등 신선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이 지난해 5

월부터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 방법을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강화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하우스 재배에 필요한 유가인상과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등도 농산물 수출 감소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수산물 수출국은 미국(3억8천만달러)과 중국(3억4천만달러)이 일본의 뒤를 이었다.

분야별 적자규모를 보면 농산물의 경우 수출은 20억 1천만달러에 그쳤지만 수입은 81억1천만달러로 6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축산물은 25억 8천만달러(수입 27억 5천만달러, 수출 1억 7천만달러), 임산물 23억 4천만달러(수입 24억 6천만달러, 수출 1억 2천만달러), 수산물 16억 8천만달러(수입 27억 7천만달러, 수출 10억 9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 농수산물 무역역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20-0541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www.nsbu.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전국 130개 도시 400여개 박징 어디서나 편리하게

##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 - 금강제화 상품권

금강, 랜드로바, 금강핸드백, 의류까지 다양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상품권의 베스트셀러  
**금강제화 상품권**

상등권 구입문의: 전국 어디서나 1588-8877

www.kumgangmail.co.kr